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9. 23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스위스, “단순 이슬람 테러단체 가담 징역형 불가”

- 9.15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알카에다·ISIS 등 테러단체 가담만으로는 「테러단체 금지법」상 징역(구금)형은 불가하며 별도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어야 관련 형의 언도가 가능하다고 판결
- \* ISIS·알카에다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라크 국적 남성에게 대해 1심에서 징역 70개월 선고, 2심에서 실형 없이 추방 판결하자 연방 검찰이 상고

#### 미주

##### ○ 美, 탈레반 동결 자산 구호기금 조성

- 9.14 재무부는 자국 내 동결 중인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 (약 9조 7천억원) 중 35억 달러를 아프간 경제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
- \* 나머지 35억 달러는 9·11 테러 희생자 유족 배상금으로 지급 예정

##### ○ 駐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, 수리남 교민 대상 안전주의 당부

- 9.13 駐베네수엘라 대사관(수리남 지역 겸임)은 수리남 정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‘수리남’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,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 유의 당부
- \* 수리남 정부는 드라마가 自國을 마약 국가로 표현했다며 법적 조치 예고

##### ○ 美, 테러 용의자 수감 관타나모 수용소\* 폐쇄 추진

- 9.17 언론은 美 정부가 그동안 고문으로 논란이 되어 온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추진 중이며, 이 과정에서 수감자 이송을 감독할 특사로 고위급 외교관을 지명하였다고 보도
- \* 9·11테러 후 테러 용의자 수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, 고문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과거 「오바마」 행정부도 폐쇄를 추진하였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

## 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북서 국경 지역 테러공격으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
  - 9.14 파키스탄군은 13일 북서부 국경지대 쿠람지역에서 테러범들의 공격으로 자국군 3명이 교전 중 전사했으나, 이에 대한 대응 공격으로 테러범들도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
  - \* 파키스탄은 테러조직들이 自國과 이웃한 아프간과의 국경에서 테러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, 어떠한 위협에도 국경을 수비할 것이라고 선언
- 日, 재일민단 대상 협박편지 수사 착수
  - 9.20 언론은 在일본대한민국민단(민단) 도쿠시마현 고마쓰시마市 본부에 '반일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격하겠다'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접수되어 일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
  - \*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과 민단 등을 겨냥한 범행이 지속 발생

## 중 동

- UN안보리, 이라크 內 ISIS 전범행위 조사단 활동연장 결의
  - 9.15 UN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라크 內 ISIS 전범행위 UN조사단(UNITAD)\*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이라크 外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도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
  - \* 이라크 정부의 ISIS 전쟁범죄 조사단 지원을 위해 '17.9월 UN안보리에 의해 출범

## 아프리카

- 소말리아 軍, 알샤바브 조직원 43명 사살
  - 9.18 언론은 소말리아 정부군(SNA)이 중부 전략요충지 불라-바르테 아보레이 지역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알샤바브가 은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, 긴급 대테러작전을 전개해 조직원 43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  - \* 同 세력은 지난 '11년 모가디슈에서 축출당했지만,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의 정부시설·호텔·레스토랑 등에 대해 지속적인 테러공격을 자행

카이로 국립박물관 관광객 테러 사건

- '97.9.18, 정오 이집트 首都 카이로의 중심 타흐리르 광장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추정되는 무장괴한 3명이 관광 버스에 총격을 가하고 3~4개의 사제폭탄을 투척하는 테러가 발생
  - 관광버스 1대가 전소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독일인 단체 관광객 9명과 버스 운전자 1명 등 10명이 사망하였으며, 10여명 부상
- 당시 주차장에는 80여대의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며, 테러범 들은 최초 공격 직후 박물관 정면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나, 곧바로 박물관과 인근 호텔 경비병력들이 응사하며 총격戰 발생
  - 총격 발생 20여분 뒤 경찰특수부대와 軍병력이 현장에 도착해 사태를 진압하였으며, 테러범 2명을 체포하고 1명을 현장에서 사살
- 사건 배후 자처 세력은 없었으나, 일각에서는 공격발생 3일 전인 9.15 이집트 군사법원이 이슬람 원리주의자 「모하메드 파우지」에 대해 불법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
  - \* 이집트 내무부는 同人이 지난 '93년 카이로 시내 세미라미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 총기난사에도 가담했었으며 정신병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
- 한편, 당시 현지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16명의 경우 테러 공격 발생 직전 박물관 관람을 종료하여 인명피해 미발생

하드타겟과 소프트타겟

- (하드타겟) 대통령·총리·외교관 등 요인, 경찰·군인·정보원 등 보안요원, 공무원 등 정책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인원 및 정부청사·군사시설·외교공관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격이 쉽지 않은 정부 관련 시설을 지칭
  - ※ 과거 팔레스타인 계열 테러단체 및 극좌 테러단체들의 주공격 대상
- (소프트타겟)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이슬람과 관련 없는 시설·인원도 모두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,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과 쇼핑몰·나이트클럽·지하철역·대중교통수단 등 경비수준이 낮아 외부공격에 취약한 민간시설 등을 지칭